

사회



3일 광주시 광산구 어룡초등학교 3층 교실에서 열린 '다문화가정 자녀 여름캠프' 참가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연필꽃이를 들어보이며 활짝 웃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 전통 문화 배워 행복해요”

광주 다문화가정 초등생들 ‘여름방학 캠프’

“방학 내내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전통 놀이와 문화를 배울 수 있어 행복해요. 날마다 배운 내용을 엄마랑 이야기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워요.” 3일 오전 11시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어룡초등학교 5학년 5반 교실, 82.6㎡ 크기의 교실에 18명의 초등학생들이 웅기충기 모여 종이 접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들은 어룡초등학교를 비롯한 광산구 초등학교 5곳에 다니는 학생들로, 여름방학을 맞아 '다문화가정 자녀 여름 캠프'에 참가했다. 이 캠프는 전통놀이 체험과 과학실험, 종이접기, 염색 체험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알찬 '방학 나기'를 돕고 있다. 이날의 주제는 '한국의 전통 연필꽃이 만들기'. 6명씩 3분단으로 나뉘어 앉은 어린이들은 종이로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연필꽃이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다. 학생들은 지도교사인 한연자(여·49·어룡초 교사)씨가 나눠준 종이를 만지작거렸다. 이어 한씨가 “왼쪽 꼭짓점이 가운데 선에 닿게 접어서 꼭꼭 눌러주세요”라며 노란 색종이를 들고 시범을 보이자 앞다투어 종이를 접기 시작했다. 이때 한씨가 연필꽃이를 응용해 청사초롱을 만들어 보이며 “청사초롱을 언제 밝히는 줄 알아요?”라고 묻자 중국 출신의 어머니를 둔 오우영(9·송정중앙초 3년)양이 “우리 남이 오실 때”라고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한씨가 “한국 전통 결혼식에서 많이 쓰이고, 남이 오실 때도 맞아요”라고 하자 오우영의 표정이 밝아졌다. 1시간여 동안 자신이 만든 연필꽃이가 완성되자 여기저기서 ‘선생님’

을 부르며 “다 만들었다”고 손을 번쩍 들었다. 한씨도 학생들을 향해 연방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아이들은 연필꽃이를 집에 가져가 자랑하겠다는 생각에 저마다 미소를 머금었다. 성유경(7·삼도초 1년)양은 “많은 친구들을 캠프에서 만나고, 평소 잘 몰랐던 한국 만들기나 딱지 접기 등 전통문화 체험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며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은 엄마도 매일 캠프에서 배운 내용을 듣고 즐거워하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캠프를 운영 중인 학교는 어룡초를 비롯, 양산·동림·효동·남·문화·방림·봉주·주월·송정·월곡·마지·월계초 등 13곳에 이른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상위권대 수시 경쟁률 ↑

진학사 전망, 정시 모집인원 줄어

2011학년도 대학별 수시모집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상위권 대학 경쟁률이 작년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입시분석업체인 진학사에 따르면, 올해 고3 재학생은 54만7000여 명으로 작년보다 2만명 정도 늘고, 졸업생도 1만명 늘어난 16만여명으로 전체 수험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진학사는 “수시 모집인원이 전체 정원 60.9%로 작년보다 늘긴 했지만, 대부분 상위권 대학에서 증가된 인원인데다 상대적으로 정시 모집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수시 경쟁률은 예년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교과과정이 개정돼 인문계열 학생도 수리영역에서 미

적분 관련 문제를 풀어야 하는 만큼 재수에 부담을 느낀 수험생들이 대거 수시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진학사는 내다봤다. 진학사는 또 “서울시립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대 등 일부 대학은 같은 차수에서 학생들의 중복지원도 허용하기 때문에 경쟁률 상승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며 “미충원 인원에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희동 진학사 입시분석실장은 “수시 모집인원이 늘었다고 하지만 수험생 증가로 경쟁률은 한만찮을 것”이라며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전형에 대한 정보 탐색이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필뉴스

택시 8부제→6부제 전환 추진

광주시, 주 5일제 확대·근무여건 개선위해

지난 1984년 이후 26년 동안 시행된 광주지역 법인택시 8부제(7일 근무 1일 휴식)를 6부제(5일 근무 1일 휴식)로 전환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주5일제에 전직장으로 확대되고 택시운전 종사자들의 과로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등이 우려되는 만큼 6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광주시는 3일 오후 남구 송하동 광택시운송사업조합 회의실에서 운수업체와 노조 대표, 시민, 전문가, 매니페스토, 관계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택시총량제 및 부제변경 등을 위한 택시업무 원탁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강운태 광주시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택시 총량제 계획 수립과 운수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택시부제 변경이 논의됐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법인택시 76개 회사 3481대, 개인택시 4753대 등 모두 8234대의 택시가 운행중이다. /윤현식기자 chadol@kwangju.co.kr

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택시총량제 및 부제 변경을 전담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으며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총량제 조사용역을 마친 뒤 택시 적정량 산정과 운영 효율화에 나설 예정이다. 또 택시 수요공급과 장래 공급규모를 산정하고 택시정책 발전계획이나 감차 보상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8부제에서 6부제로 전환할 경우 하루 146대의 택시가 쉬면서 업체 측이 수익 감소를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부산이나 대구, 대전 등도 6부제인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법인택시 76개 회사 3481대, 개인택시 4753대 등 모두 8234대의 택시가 운행중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학습보조 교사 245명 채용

광주·전남교육청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하반기 인턴교사 245명을 모집한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문상담 30명, 학력향상 중점학교 18명, 사교육 없는 학교 12명, 과학교육 11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43분, 해질 19시 33분, 달맞이 14시 10분. 폭염주의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다. 광주 날씨: 구름맑음 26/34°C, 폭포: 구름맑음 25/32°C, 여수: 구름맑음 25/30°C, 완도: 구름맑음 25/31°C, 구례: 구름맑음 25/34°C, 예남: 구름맑음 25/32°C, 장흥: 구름맑음 25/32°C, 고흥: 구름맑음 24/33°C, 순천: 구름맑음 25/34°C, 영광: 구름맑음 26/33°C, 진도: 구름맑음 25/34°C, 남원: 구름맑음 24/32°C, 흑산도: 구름맑음 23/29°C. <오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남해 서부 앞바다. <오후> 바다: 서해 남부 앞바다, 남해 서부 앞바다. <주간날씨>: 5(목) 26/33, 6(금) 26/31, 7(토) 25/31, 8(일) 24/32, 9(월) 25/32, 10(화) 25/32.

추석 호남선 열차 승차권 19일 예매

코레일 광주본부 구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 예약은 오전 6~8시, 코레일 추석승차권 예약 전용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하고, 역이나 지정 판매대리점에서 오는 오전 10~12시 창구에서 판매한다. 코레일 광주본부는 추석 연휴기간 KTX 342회, 새마을호 110회, 무궁화호 324회 등 756회 운행할 예정이다. 문의 1544-7788, 1588-7788.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광주 초·중·고 학교급식 위생관리 '양호'

시교육청 281곳 조사. 광주지역 초·중·고교 대부분이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일부 학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281곳에 대한 상반기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결과 268곳이 평균 90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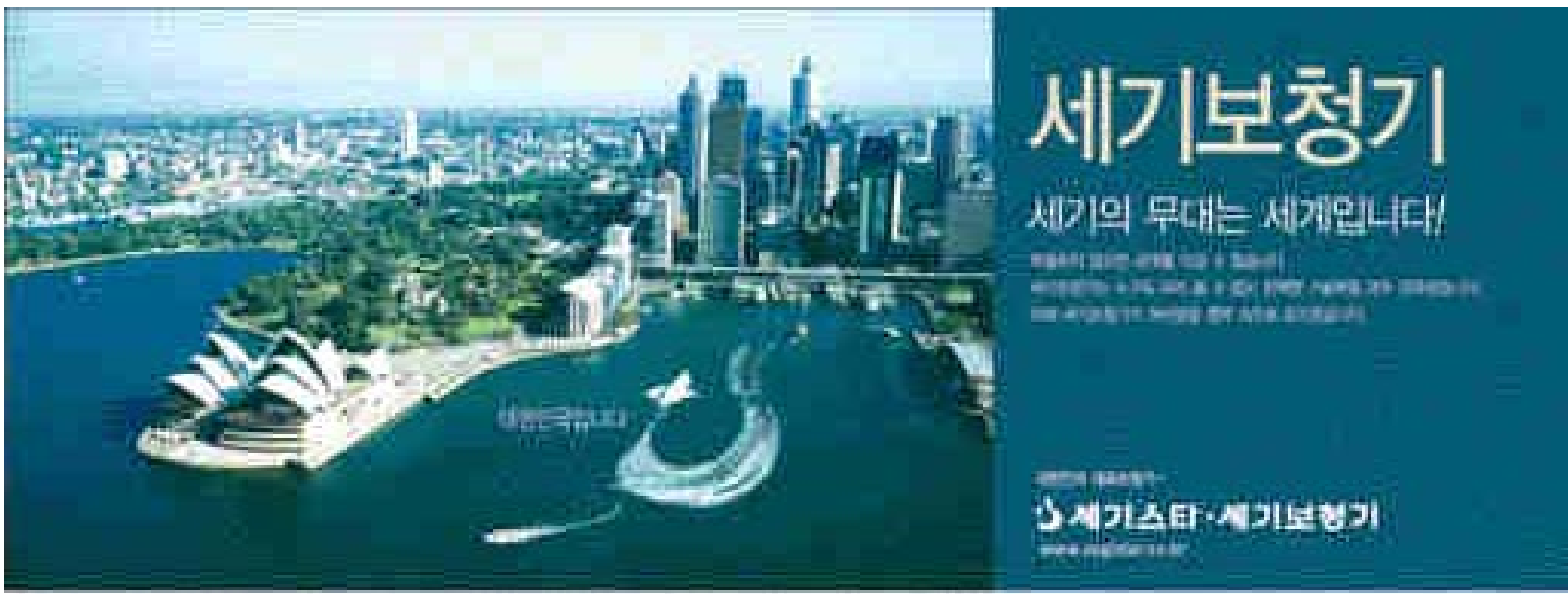
산부인과엔 분만실이 없다?

병·의원 4곳 중 1곳만 갖춰... 담양 등 9개 시·군엔 1곳 씩 뿐

광주·전남지역 산부인과 병·의원 중 분만실을 둔 경우가 4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양 등 전남지역 9개 시·군에는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가 각각 1곳 밖에 없어 산모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광평·영광·장성)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기관 종별 분만실 설치 기관

현황'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전국 3668개 산부인과 병·의원 가운데 분만실을 둔 곳은 1007개소로 27.5%에 불과했다. 지역별 설치율은 대구가 18.4%로 가장 낮았고, 서울 19.4%, 부산 24.4% 순이었다. 이어 광주의 경우 153개의 산부인과(삼급·종합·병·의원·조산원) 중 분만실을 둔 곳은 35곳(25.5%), 전남은 170개 중 47곳(27.

1%)에 불과해 광주·전남 모두 전국 평균치에 미달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따라 진료인원이 줄어들면서 산부인과 병·의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며 “산부인과 수가 늘리는 한편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선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jkpark@kwangju.co.kr



21세기보청기, 21세기보청기, 21세기보청기. 1300-8489-1111-22-8108. 21세기보청기, 21세기보청기, 21세기보청기.